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Monthly Newsletter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내부감사에서 시작하는 DEI 지원방안』 외 월간 동향 콘텐츠

2023.09

Contents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 주요 규제 동향
- III. 국내외 뉴스
- I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딜로이트 글로벌 & Internal Audit Foundation (IIF) &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IIA)

내부감사에서 시작하는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지원 방안 - 내부감사가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법: 부서 내에서 조직 전체에 이르기까지 -

- 딜로이트 글로벌, The Internal Audit Foundation(IIF) 그리고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IIA)는 내부감사부서가 조직문화 평가에 통찰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의 기회와 의무에 대한 3부작 보고서 시리즈”를 공동으로 발표함
 - 본 보고서는 3부작 중 마지막으로 다양하고 형평성 있으며 포용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내부감사의 역할을 제시함
 - 내부감사의 역할은 ESG 보고·문화 리스크와 같은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도록 확장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DEI는 중요한 요소임
 - 내부감사는 감사 기법을 적용하여 조직 전체 및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경영진의 DEI 목표 달성을 지원하며, 이는 문화적 리스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조직 DEI 계획을 평가함으로써 달성 가능함
 - 내부감사부서의 DEI 지원 방안

다운로드



내부감사에서 시작하는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지원 방안

QR 코드



1. 변화 촉진

- DEI 지원 프로그램이 조직목표를 달성하는지 평가하고 결과를 이사회·경영진에 보고하여 촉매제 역할 수행
- 프로그램 개선 필요시 조언을 제공하거나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여 DEI 원칙을 내부감사에 적용하고 DEI 이니셔티브의 효과성을 평가

2. 맥 짚기

- 내부감사부서 내부, 조직 전체 및 이해관계자들 간 DEI 현재 상태를 측정하고 조직 내 여러 영역에서 DEI를 진전시키기 위한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는 데 이용

3. 내부감사기능에 대한 DEI 지원

- 내부감사 맞춤형 DEI 프로그램, 내부감사인의 채용·교육·개발 활동을 평가함으로써 내부감사기능의 DEI 목표가 조직의 종합적인 DEI 목표와 일관성을 갖도록 지원

4. 조직 전반에 대한 DEI 지원

- 임직원의 참여와 활동, 정치적 환경 및 시장의 신호를 고려하여 조직의 문화 리스크를 평가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이 공유된 핵심 가치를 수용하고 조직의 브랜드 평판과 직원 복지를 보호, 발전시키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며 상시 내부감사 계획에 반영

5.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DEI 지원

-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영 의사결정시 이를 어느 수준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조언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에 대비하도록 도움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딜로이트 글로벌 & Internal Audit Foundation (IIF) &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IIA)

포용적인 조직문화 조성: 다양성을 지닌 인재의 채용·유지·육성을 위한 내부감사의 역할

- ▶ 본 보고서는 딜로이트 글로벌, The Internal Audit Foundation(IIF) 그리고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IIA)가 공동으로 제작한 3부작 시리즈 중 첫번째 보고서로, 다양성을 지닌 인재의 채용·유지·육성을 위한 내부감사의 역할을 제시함
- ▶ 많은 연구에 따르면, 다양성을 갖춘 조직이 동질적인 조직보다 더 혁신적이고 생산성이 높음
 - 최신 연구,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에서 S&P 500 중 가장 다양성이 높은 20개사의 지난 5년간 연간 주식 수익률은 10%인 반면, 가장 다양성이 낮은 기업들은 4.2%로 대조되는 결과가 나타남
- ▶ 기업들은 인재 채용·유지·육성을 위한 전략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내부감사는 이러한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음
- ▶ 포용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내부감사의 역할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확신 (Ass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 채용 및 유지를 위한 벤치마크의 확인 • 주요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의 평가 • 채용담당자 교육 및 채용계획 검토 • ESG 보고 요구사항과 관련된 공시 분석
조언 (Adv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 채용, 유지 및 육성 프로세스에서 경영진의 인지적 편견 식별에 도움 • 다양한 인재 채용·유지·육성 목표가 조직의 가장 중요한 DEI 목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 • 경영진 및 이사회에 DEI 진행상황에 대한 조언 제공 • DEI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조직이 DEI 목표를 충족하는지 확인
예측 (Anticip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I 목표 달성 또는 개선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와 규제요구 보고 • 내부 및 외부 데이터의 관점에서 DEI 리스크 지표 모니터링 • DEI 리스크 사건과 그 원인관계 예측을 위해 인지기술과 분석을 결합
촉진 (Accele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에 영감을 줄 수 있는 DEI 행동 파악 • 다양한 인재의 채용 및 유지에 있어 DEI를 촉진, 지원 및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 DEI 원칙 준수를 위해 경영진을 지원 • DEI 선도사례를 모델링하여 실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딜로이트 글로벌 & Internal Audit Foundation (IIF) &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IIA)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101 : 조직의 소속감 조성을 위한 내부감사의 역할

- ▶ 본 보고서는 딜로이트 글로벌, The Internal Audit Foundation(IIF) 그리고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IIA)가 공동으로 제작한 3부작 시리즈 중 두번째 보고서로, 다양성을 지닌 인재의 채용·유지·육성을 위한 내부감사의 역할을 제시함
- ▶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그리고 반억압과 소속감은 개인별로 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DEI 계획을 개발함에 있어, 조직은 이러한 개념이 조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함
- ▶ DEI 용어의 정의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다양성 (Diversity)	• 집단 내 인종, 민족, 국적, 성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 능력, 종교 및 나이를 포함한(그러나 국한되지 않는) 정체성의 다양한 측면을 의미
형평성 (Equity)	• 자원배분, 기관과 시스템의 프로세스 내 정의와 공정성의 증가를 포함 •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나 평등한 결과를 보장하진 않음
포용성 (Inclusion)	• 소속감을 유지하고 촉진하며, 사람들이 그들의 본래 가치와 존엄성, 재능 등을 인정받게 하는 존중을 가치있는 것으로 느끼며 실천
반억압 (Anti-oppression)	• 배제적이고 억압적인 시스템, 정책, 실천 그리고 조직의 가치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직면하기 위한 이론, 전략 및 적극적인 실천을 의미
소속감 (Belonging)	• 심리적 안정과 다양성을 지닌 팀/조직을 육성하는 포용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집단의 한 부분으로서 자신이 완전하고 온전한 자아라는 감정을 의미

- ▶ 다음의 역할과 책임을 통해 내부감사는 경영진의 DEI 목표 달성과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구분	내용
확신/보증제공자 (Assurance Provider)	• 인력시장사회세가지 영역의 검토를 통해 조직내 DEI 현재 상태를 평가 • 기존 감사계획에 DEI 고려사항을 추가하여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질적양적 접근법 적용 • 조직이 명시된 DEI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
신뢰받는 조언자 (Trusted Advisor)	• 조직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보고하는 감사 프로그램에 DEI 리스크를 통합 • 경영진이 인재관리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인지편향과 잠재적 악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 부서, 기능 등에 걸친 DEI 목표가 조직의 가장 중요한 DEI 목표와 일치하는 지를 결정 • 경영진과 이사회에 DEI에 대한 견해를 제공
책임의 주체 (Agent in charge)	• 조직에 영감을 주고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DEI 행동을 파악 • DEI 홍보·자원 활성화 위한 변화를 제안 • 경영진이 불공평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지원 • 내부감사부서 내 DEI 모범사례 모델링을 실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9.13 (수)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 ▶ 금융위원회는 '주요회계제도 보완방안'(23.6.12)의 후속조치로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함
- ▶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들의 감사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후 고시하는 '23.9.14 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임
- ▶ 개정고시안 주요 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 1.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적용 합리화**
 - ①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연속발생 부담 완화**
 - (현행) 직권지정기간(3년) 중 다른 직권지정사유 발생시 지정기간(3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으나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과도하게 지정이 장기화되는 경향
 - (개선)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 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예:3년)을 보장*
 - * 후행 지정처분 여부는 선행 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
 - ②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판단기준 합리화**
 - (현행)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 여부는 연결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배기업 본연의 사업성과를 지정 여부 판단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 중요도가 낮은 종속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상황 악화에도 지배기업이 직권지정
 - (개선)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
- 3.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 (현행) 자유선임 시 해당 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으로 감사팀을 구성하지만, 지정 감사시에는 자유선임시에 비하여 감사팀 내 해당 산업 등에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미흡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있음
 - (개선) 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하는 등 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정
- 4.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 (현행) 회계법인에 경력기간이 긴 회계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되어 회계사 연차가 높을수록 많은 기업이 배정되는 경향
 - (개선)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시 고연차 회계사의 지정점수를 직장인의 정년퇴직시기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
- 5.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 (현행) 지배·종속기업 중 일부만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감사인 일치를 위해 기업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시에는 다른 감사인이 지정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발생
 - (개선)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 일치를 위해 지정 요청시 사전통지부터 동일 감사인을 지정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9.8 (금) 금융감독원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상장법인 2,511사의 FY2022 감사보고서를 분석함

* '23.3월말 주권상장법인 2,589사 중 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 등 78사 제외

- 유가증권 796사(31.7%), 코스닥 1,584사(63.1%), 코넥스 131사(5.2%)
- 12월 결산 2,473사(98.5%), 연결재무제표 작성 1,943사(77.4%)

▶ FY2022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다운로드



QR 코드



1. 감사의견 현황

- (적정의견) 적정의견 비율은 97.9%로 新 외부감사법 시행('19회계연도) 이후 큰 변동 없이 일정 수준* (97%대) 유지
 - * 적정의견 비율: ('19년) 97.2% → ('20년) 97.0% → ('21년) 97.2% → ('22년) 97.9
- (비적정의견) 상장법인 53사가 비적정의견으로 전기(68사) 대비 15사 감소
 - 한정의견 7사, 의견거절* 46사로 의견거절은 '20년을 정점(65사)으로 감소 추세*
 - * ('20년) 65사 → ('21년) 58사 → ('22년) 46사
 - 비적정의견*은 감사범위제한(45사), 계속기업 불확실성(26사)이 주요 원인
 - * 한 기업의 비적정의견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중복하여 계산

2. 강조사항 등 유의사항 기재 현황

- (강조사항)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289사(11.5%)로, 전기(572사, 23.6%)대비 크게(△283사, △12.0%p) 감소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19관련 강조사항이 감소한데 주로 기인함
 - *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 주의 환기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
- (계속기업 불확실성) 적정의견 법인(2,458사)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상장법인은 85사로 전기(92사) 대비 7사 감소*
 - * (20년) 105사 → ('21년) 92사 → ('22년) 85사
 - 자산규모별(85사): 1천억 미만(61사), 1천억~5천억(15사), 5천억 2조(7사), 2조 이상(2사)
 - '21년에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92사)의 상장폐지·비적정의견 비율은 12.0%로 미기재 법인(1.9%)보다 약 6배 높았음

3. 감사인 분포

- (회계법인 규모별)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20회계연도 이후 31~32%대 수준을 유지
 - *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 기준: ('20년) 31.0% → ('21년) 32.6% → ('22년) 31.8%
 - 중견회계법인(Top 10 중 하위 6사)의 감사비중(32.3%)도 소폭(+1.1%p) 증가
- (감사대상 자산규모별) Big4의 자산 2조원 이상, 5천억~2조원 미만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각각 92.4%, 57.8%로 Big4 비중이 높음
 -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법인의 Non-Big4 비중*은 78.4%
 - * 자산 5천억원 미만 Non-Big 4 비중: ('20년) 79.6% → ('21년) 78.0% → ('22년) 78.4%

II. 주요 규제 동향

2023.9.8 (금) 금융감독원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계속)

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 (감사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의견 비율은 2.5%(38사)로 전기 (445사 중 비적정 4사, 0.9%) 대비 1.6%p(34사) 증가*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증가(+1,065사) 및 인증 수준 강화(검토→감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비적정의견 38사 중 부적정의견은 20사, 의견거절은 18사로 이 중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의견을 받은 법인은 21사
 - * 부적정의견: 평가기준일 현재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 의견거절: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감사범위 제한)

➤ 시사점

구분	내용
비적정의견 비율 감소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2020 회계연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엄격한 감사환경을 조성한 새로운 회계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 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 • 상장법인도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작성·공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함
재무제표 수정 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재무제표 수정 기재 건은 48건(13.1%)으로 여전한 바, 기업들은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충실하게 구축·운영하여야 함 •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수정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감리 등을 통해 엄정 조치 예정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내용에 유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보고 이용자들은 의사결정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회사의 위험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감사의견이 적정임에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한 상장법인의 경우 재무상황 및 영업환경 등의 개선이 없는 경우 향후 비적정의견을 받거나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음
상장법인 규모에 따른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분포 양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2조원 이상 4대 회계법인(Big4) 감사비중은 92.4%이며, 자산 5천억원 미만 Non-Big4 비중은 78.4%로 자산규모에 따른 회계법인 분포가 양분 •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제고, 감사품질 경쟁촉진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을 추진 중 • 회계법인은 가격중심의 수임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개선 노력을 통해 외부감사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9.1 (금) 금융위원회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시행

-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이하 가이드스)가 '23.9.1부터 시행됨
-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 회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운영함
 - 평가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시함(총 6개 장, 21개 조문*)
 - * ①총칙 ②내부통제체제 구축 ③원천데이터의 수집·비공개정보 관리 ④평가체계 공개 ⑤이해상충 관리 ⑥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 ▶ 3사는 가이드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가이드스 세부항목별 준수 여부를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공개함
 - *참여기관이 가이드스의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되,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
- 각 사의 평가절차, 평가지표가 담긴 평가방법론을 공개함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준수 현황
한국ESG기준원, 서스틴베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장 21개 조문 모두 준수
한국ESG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조문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준수 항목은 평가기업과의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

- ▶ 3사는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로서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함

구분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의 평가기관으로 구성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가이드스의 실효적인 운영을 자율적으로 점검 • 국내외 ESG 평가기관의 가이드스 준수 및 협의체 참여 권고·지원 • (한국거래소 공동) 가이드스 이행 현황 비교·분석하여 정기 보도자료 배포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8.24 (목) 법무부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 ▶ 법무부는 8월 24일,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 코로나19 이후로 확산된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전환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음
 - *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에서도 주주권 보장의 일환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권고
 -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기업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 지원을 위하여 기업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
-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시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업 비용 부담의 개선이 기대됨
- ▶ 개정안 주요 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1.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 전자화

- 상법 개정안 제364조의2 등
 -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
- 상법 개정안 제363조 제1항
 -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의 명확화를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

2.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강화 등

- 상법 개정안 제530조의12 제2항
 -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 *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음
 - ** 상장사는 '22.12경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이 이미 부여
- 상법 개정안 제374조 제2항, 제3항,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 6항 등
 -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설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
 - 매수대금에 다툼 발생 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하여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 허용
 -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근거 제시, 열람등사청구권 보장

- ▶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연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투명성

- 회계개혁, 기업 부담 고려하되 계속 추진해야 [조세일보]
- 투명성 높은 표준시스템 구축 독립팀 늘려 내부통제 강화도 [매일경제]
- 제약바이오협회, 내달 5일 회계·세무 이슈 세미나 개최 [청년의사]
- 내년부터 노조 자산·부채 현황 공개한다 [대한전문건설신문]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도입 5년 유예 [정보통신신문]
-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한다...재무회계 정기점검, 대표자 대면평가 [뉴스1]



부정행위방지

-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강력 대응...합동단속반 운영 [연합인포맥스]
- 윤한홍 의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법 추진 [파이낸셜투데이]
- 은행 내부통제혁신안 이르면 연내 도입 [디지털타임스]
- 금융 업권별 횡령·배임 연달아 드러나...내부통제 강화 어떻게? [투데이신문]
- 회계 부정 발견 시 증선위 신고 의무화...외부감사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 국세청, 39개 공익법인 정밀검증...사적유용·회계부정 혐의 [연합인포맥스]



규제 동향

- 코스피 시총 상위 100곳 중 30곳은 2026년부터 EU ESG 공시 의무 [서울경제]
- 금융위원회, ESG 공시, 글로벌 정합성과 국내 산업구조 특성 모두 고려 [머니투데이]
- 증권선물위원회 분식회계 자료 법원송부 실효성 제고 외부감사법 개정안 발의 [일간NTN]
- 연속 직권지정 부담 완화...금융위, 외감회계 규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M&A

- 4대 금융지주, 비은행 사업 총력...M&A 승부수로 외연확장 [브릿지경제]
- 증권사, 해외 M&A 자문 급감...국내외 기업, 경기·환율로 위축 [연합인포맥스]
- 플랫폼화 가속...글로벌 보안 시장 M&A 열기 고조 [디지털투데이]
- AI 경쟁환경 불안해져...기술 독점 의도 M&A 감시할 것 [이데일리]
- 중견계약사, 새 먹거리 찾아라 M&A 붓물 [매일경제]
-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수출·M&A 신고건수 5년간 3배 이상 급증 [해럴드경제]
- 국내 M&A 시장서 인기 높아지는 의료기기 [데일리메디]
- 올 하반기 중 인수합병 활발, 자본시장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 중소기업 M&A 활성화·스팩 통한 상장도 확대 [서울경제]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ESG 경영, 주요 국내 제약사의 지배구조는? [메디포 뉴스]
- 지배구조 모범 DGB금융, 25일 차기 회장 선임 절차 착수 [연합인포맥스]
- 지배구조 개편 동국홀딩스, 4세 승계 속도내나 [톱데일리]
- 이사회 문턱 넘은 국민연금 지배구조자문위...명확한 정체성 확보가 관건 [시사저널e]
- 3세 경영 앞둔 서흥, 꿈틀대는 승계작업 [딜사이트]
- 중대 금융사고시 CEO도 책임져야, 정부·여당,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감독체계 강화 등 10대 과제 추진 [연합인포맥스]
- 경제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매일경제]



이사회·감사위원회

- 공정위, 오투기·광동제약 조사...부당 내부거래 혐의 [스트레이트뉴스]
- 소비자보호 조직 별도 만들고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기주총 주주제안 가결 9.6%뿐...ESG 이슈 등 관여폭도 넓혀야 [한겨레]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수직적 지배구조 해법 아직 못 찾아 [조선비즈]
- 컴플라이언스가 뭐길래, 기업들 전담조직 만들고 ISO인증 따고 [아시아타임즈]
- 금융위원회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스 9월부터 시행 [뉴스트리]
- 한국ESG기준원, 평가대상 1천49개사...10월 최종 등급 발표 예정 [데일리뉴스]
- 이사회 문턱 넘은 국민연금 지배구조자문위...명확한 정체성 확보가 관건 [시사저널e]
- 감사위원회포럼, 내달 정기 포럼... 'ESG 공시 산출 프로세스' 초점



한국 딜로이트 그룹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3 글로벌 인적자원 트렌드 보고서' 발간 [뉴스와이어]
- 딜로이트, '2023 글로벌 인적자원 트렌드 서베이' 발간...[메트로신문]
- 굿센-딜로이트 안진, 지능형 자금사고 방지 파트너십 [지디넷코리아]
-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 '글로벌 최저한세' 초읽기 [매거진환경]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인공지능 활용서: 6대 산업별 활용사례' 국문본 리포트 발간 [시흥타임즈]
- 업무 분장표 사라진다...기업 리더 59%, 업무 재구상에 집중, 한국 딜로이트 그룹 [CIO 코리아]

IV. 주요 행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 3호 발간

-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이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8월 31일, 거버넌스 현안과 함께 국내 상장법인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을 담은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 3호(연4회, 계간지)를 발간함
- ▶ 전문가 기고 섹션에서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Audit&Assurance 오정훈 파트너가 해외자회사 자금통제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 사전예방 수단에 대한 의견을 담았으며,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적절한 내부통제 감독 수행의 중요성」과 관련한 칼럼도 수록됨
-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국내 기업들이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한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다운로드



카드뉴스

QR 코드



구분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 3호 목차
I. 전문가 기고	① 해외자회사 자금통제 안전한가 - 한국 딜로이트 그룹 Audit&Assurance 본부 오정훈 파트너 ②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
II. CCG 아젠다	①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 복합적 역할 ②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의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III. 데이터 포인트	①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 준법지원인 준법감사인 제도 도입 현황 ② 2021~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IV. 주요 규제 동향	① ISSB,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발표 ②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群) 구분 세부기준 등
V. FAQ	①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IV. 주요 행사

Upcoming events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웨비나

- ▶ 금번 웨비나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교수단과 업계 최고의 회계·경영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위한 제언 및 시사점을 전달하고자 함
- ▶ 웨비나 접속 경로는 사전 등록자에 한해 추후 개별 안내 예정

구분	내용
일시	2023년 11월 09일 목요일 14:00 ~ 16:10
장소	온라인 생중계 웨비나 (참가 신청 추후 공지 예정)

- ▶ 웨비나 시간표 안내

시간	진행활동	연사
14:00~14:05	인사말씀	사회자: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14:05~14:30	세션 1.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유승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4:30~14:55	세션 2.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장정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55~15:05	Break Time	
15:05~15:30	세션 3.	한국 딜로이트 그룹 코어테크놀로지그룹, AI&DATA 이성호 상무 -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변화의 흐름에 대해 강연 예정
15:30~15:55	세션 4.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재무자문본부 임규동 파트너 - 부정조사 및 보고 의무(사고사례 및 조사대응 중심)에 대해 강연 예정
15:55~16:10	Q&A/ Closing	세션 강연자, 사회자

IV. 주요 행사

Upcoming events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웹 세미나] Talent Frontier: 이사회가 인력의 미래를 형성하는 방법

- ▶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은 글로벌 서베이를 통해 글로벌 권역의 이사회가 직무 현장에서 '인재와 인력'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감사, C레벨 경영진을 대상으로 조사함
- ▶ 현재 이사회 아젠다에서 중요한 주제인 '인재와 인력에 관한 이사회 역할'에 통찰력을 제공함
- ▶ 상기 서베이의 결과는 '23년 10월 17일 웨비나를 통해 공유되며, 보고서는 이어 발간될 예정임

신청하기

QR 코드



구분	설명
일시	2023년 10월 18일 (수) 오전 12: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ean-Christophe Deslarzes (Adecco Group 및 Constellium 회장) • Michael Fraccaro (Mastercard Inc 인사총괄책임자) 외 2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미래는 신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광범위한 인구통계학적 변화, 직원의 예상 기대 사항, 비용 통제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압박 등 변화의 힘에 노출되어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산업 및 권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변화에 따라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며, 기업을 리드하는 이사회는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조용한 퇴사와 대량 퇴사와 같은 최근 회사에서 부각되고 있는 인력 이슈에 대한 대응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토론 예정

IV. 주요 행사

Upcoming events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웹 세미나] 향후 글로벌 지정학적 방향: 2024년의 미국, 유럽, 아시아

구분	설명
일시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Baron van DAELE (벨기에 국왕의 국무장관(RTD) 대사) • Anthony L Gardner (유럽 연합 주재 미국 대사, 2014-2017) • Iberdrola (제2 부의장, Brookfield Asset Management 상임고문, Brunswick Group 고문) • Shahira Knight (Deloitte US 정책 및 대정부 관계 관리 책임자, 전 백악관 입법 업무 담당 국장) • Han-Koo Yeo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1-2022)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에는 동유럽의 위축,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 고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높은 에너지 비용 및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 이사회가 2024년을 전망하며 고려해야 할 미국, 유럽 및 중국의 새로운 지정학적 주제에 대해 살펴볼 예정 • 2024년을 바라보며 기업은 어떤 지정학적 환경을 기대해야 하는지,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정학적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럽과 확장된 NATO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중국은 세계에서 자국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논의 예정

신청하기

QR 코드



IV. 주요 행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설명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동영상 보기

QR 코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hansukim@deloitte.com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junoh@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krccg@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톡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톡 채널]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